

天然記念物의 保護

李 昌 福

Protection of Natural Monuments

Tchang Bok Lee

The author made a proposal of natural monument protection citing following facts

1. In 1916 General Government of Korea recorded 5330 individuals of old and big trees from Korea, among which *Zelkova serrata* occupied 36.38% of total and *Celtis sinensis*, *Ginkgo*, *Pinus densiflora*, *Fraxinus mandshurica* and *Sophora japonica* followed it in the number of trees of the species recorded. In 1972 Ministry of Interior recorded 13784 old and big trees which enumerate 90 species. Among those a single species, *Zelkova serrata* had 50.63% of total, 10 species, such as *Celtis sinensis*, *Pinus densiflora*, *Ginkgo*, *Salix glandulosa*, *Sophora japonica*, *Juniperus chinensis*, *Gleditsia japonica var. koraiensis*, *Quercus acutissima*, *Quercus variabilis*, and *Wisteria floribunda* were 38.37%, and the rest 79 species had 11% of total in the number of individuals recorded.
2. Made an operation to *Pinus densiflora* (Nat. monum. no. 103) in order to eliminate the basal part of a branch decayed.
3. Transplanted *Salix glandulosa* in order to secure from demersion of water caused by Janseong Dam construction.
4. Preservation of natural habitat of *Abeliophyllum distichum*; Made cuttings of *Abeliophyllum distichum* and distributed over 1000 cuttings to the primary school through official channel and planted some of those grown to the natural habitat since most of them were disappeared so far.
5. A variety and two new forms of *Abeliophyllum distichum* were disclosed as the followings; var. *obtusicarpa*, for. *viridicalycina* and *eburneum*.

1. 老 巨 樹

우리나라에 있어서 老巨樹의 保護로서 文獻上 납아있는 것은 1916年 朝鮮總督部에서 발행한 朝鮮巨樹老樹名木誌가 있다. 여기에는 66種 5,330株가 收錄 되었는데 所在地, 크기, 所有者 및 이에 얹힌 傳說이 所載되었다. 數的으로 가장 많은 道로서는 全南이 제일이고 慶南이 이에 따른다.

樹種別로는 느티나무가 1,939株로서(36.38%) 個體數가 가장 많고 팽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들메나무 및 회화나무 등이 이에 따른다. 다음은 버드나무, 느릅나무, 것나무, 상수리, 굴참, 서어나무, 시무나무, 음나무, 밤나무 및 향나무 등이 따르고 있는데 이중에서 은행나무와 회화나무 이외에는 只今도 山野에서 흔히 자라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山野에서

흔히 자라고 있던 나무가 伐採의 危機를 벗어나서 남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72年 內務部에서 조사한 保護樹誌에는 南韓地域에서 90種 13,784株를 收錄함과 동시에 道, 市, 邑, 面 및 마을나무 등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特別한 保護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 여기에 나타난 數字에 따르면 日政下에서 收錄 되었던 5,330株中 2,216株가 南韓에 있었는데 그중 1,087株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이중에서 256株는 伐採 되었고 남아지 831株는 自然死로 나타났다. 即 56年間에 49%의 老巨樹가 없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特別한 保護措置가 要求 된다.

1972년에 조사된 老巨樹中 느티나무가 6,979株로서 全株數의 50.63%를 차지하며 1916年的 36.38%에 비해 越等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自然增加가 아니고 기왕에는 작았지만 56年間 無事히 그의 生長을 계속하여 살아남은 結果이다. 다음은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왕버들, 회화나무, 향나무, 주엽나무, 참나무(상수리 및 굴참등의 총칭인듯) 및 음나무 등의 順으로 株數가 많고 기타 樹種 80種은 모두 1,511株로서 全體의 11%를 차지한다. 即 1916年에는 느티나무를 비롯한 16種이 62%를 차지하였으나 1972年에는 느티나무를 비롯한 10種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무의 종류가 줄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即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전체의 63.83%를 차지하고 여기에 소나무를 합치면 72.93%로서 되며 느티나무, 팽나무 및 소나무등 3種이 全體의 73%를 차지 한다.

以上 나타난 樹種은 1916年度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은행나무와 회화나무를 除外하고는 山地에서 자라고 있는 樹種으로서 過去 우리의 周邊 숲에서 자라고 있던 樹種中에서 어떠한 事由로서 採伐을 면하고 남아온 樹種들이다. 그런데 1916年度의 조사결과 나타난 5,330株中 1,705株는(32%) 人類生活과 관련된 여러가지 古事 및 傳說에 얹혀 있으며 1972年度에 조사된 13,784株中 4,312株(31.28%)가 이러한 事緣에 얹혀있다. 即 지금 남아있는 老巨樹의 1/3은 나무가 서있는 隣近住民들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에 無事히 自然壽命을 유지하고 있다. 나마지 나무들도 어느 한때에는 이러한 事由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數字上으로 볼때에는 1916年에 비하여 1972年度가 훨씬 많다. 別論 기왕에 있던 작은 나무가 큰것도 있지만 後者에 있어서는 기준을 나주어서 다루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株數로 나타났다. 即 前者에 있어서는 느티나무의 경우 胸高周圍가 大部分 3 m 이었으나 2 m 이상이 若干 포함될 정도이었지만 後者에 있어서는 1 m 이상으로 한 점이 다르다. 事實 느티나무는 1916年度의 조사결과는 801株이었는데 지금 當時의 것이 남아있는 것은 319株(39.83%)로서 56年間에 60% 이상이 없어진 점은 특히 老巨樹保護에 대한 格別한 注意가 要請된다. 따라서 作者는 기회가 있는대로 이의 보호에 대하여 實行한바 다음과 같다.

(1) 正二品松의 外科手術

忠北 報恩郡 內俗離面 上板里 17번지에서 자라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는 높이 24m, 가슴높이의 둘레 4.55 m로서 法住寺로 들어가는 바로 車道에 隣接하여 서

있다. 퍼진 가지의 나비는 동쪽이 9.2 m, 서쪽이 8.3 m, 남쪽이 9.2 m 그리고 북쪽이 9.3 m이며 서쪽의 가지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죽어간다. 地上部는 동쪽만이 健全하고 높이 約 2 m 정도로서 북쪽은 나비 50 cm, 서쪽은 나비 24 cm 그리고 남쪽은 나비 60 cm 정도의 外科手術이 이미 施行 되었다. 이러한 밑부분의 傷處回復이 어렵고 또 북쪽에서 서쪽을 통하여 남쪽에 이르는 사이는 健全한 部分의 나비가 60 cm와 54 cm가 手術된 사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養分과 水分不足으로 인하여 서쪽의 잎부분의 가지가 계속 죽어가는듯 하다. 그런데 約 5 m 높이의 力枝基部가 썩기 시작하여 이미 노박덩굴이 거기에 붙어서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함과 동시에 썩은 부문을 제거하고 다시 시멘트로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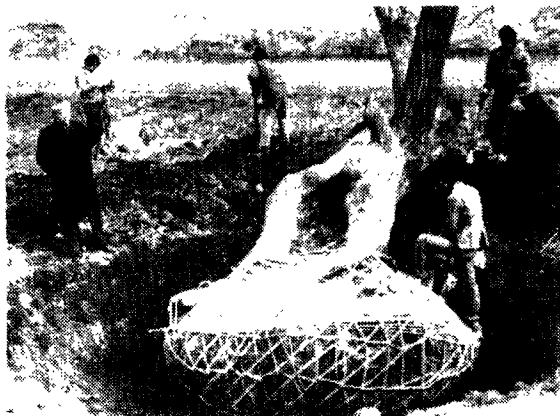
針葉樹는 假導管과 篩細胞를 통하여 水分과 養分이 통하기 때문에 밑부분의 傷處가 있어一部에서水分과 양분이 통과할 수 있다 하드라도 左右間의 안락이 비교적 잘 이루워지지만 正二品松의 경우는 그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또 오랫동안 이의 치료를 소홀이 한 결과 서쪽의 가지가 계속 죽어갔다고 생각되며 더욱 늙은 나무가 여름철의 多濕狀態에서 허덕인 결과 이의 回復이 어려웠다. 近來에 이르러 周圍의 排水處理와 車道의 변경 등 最善을 다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었다. 근자에는 山林廳의 協力으로 소나무 흑별의 侵入을 防止하고자 藥劑의 空中撒布 等을 신시한結果 아직 이에 대한 피해는 없는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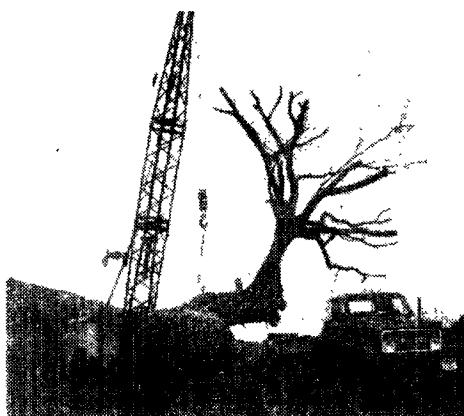
* 李文豪君(林學科 大學院生)이 사다리 위에서 力枝 밑부분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있다.

(2) 왕버들(*Salix glandulosa* Seem.)

江原道의 平昌 및 洪城郡의 2株를 비롯하여 忠清道以南에서 464株를(1972) 收錄하였다.
이중에서 全南 長城郡 長城邑 龍德里 59—2에서 자라는 것(제80호)과 慶北 青松郡 巴川面 官洞 721번지(제193호)에서 자라는 것은 각각 天然記念物로 指定 되어 있다. 제116호로 지정



I. 堀取, Dug up the root.



II. 運搬, Transportation



III. 移植, Transplanted



IV. 回復된 모습, Recovered

되었던 慶北 月城郡 外東面 淵安里 953번지에서 자라는 것은 밑부분이 썩어서 완전히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解除하였으나 넘어진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長城의 왕버들은 長城 땜이 完成됨에 따라 水沒地帶에 들어감으로 이를 땨밖으로 다음과 같이 移植하였다.

文化財委員會 第三分科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筆者が 技術指導를 담당하였으나豫算措置가 늦어져서 1976年 1月 17일에 移植作業을 시작하였다. 17일 아침부터 파기 시작하여 18일 아침까지 약 2m 정도 파내려갔을 때 서쪽에 커다란 썩은 줄기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과거 자라면 줄기의 옆에서 자란 가지임을 알 수 있었다. 남아있는 줄기를 中心으로 하여 直徑 3m밖을 파냈지만 大部分이 얹히고 얹힌 細根塊로서 鉢을 만드는데는 새끼로 얹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러나 萬一을 위하여 예정대로 새끼를 둘러서 鉢을 지었다.

移植을 위한 剪枝作業은 작업도중 쓰러질 경우를 생각하여 나무를 완전히 쓰라뜨린 다음 신시하였고 溫度가 零下 17度로 갑자기 내려가는데 대한 對備를 하지 못하였다. 剪枝後의重量은 속이 완전히 비었기 때문에 12t 정도로 추정되어 20t 크레인으로 트레일러에 積載하였다. 途中 高壓線下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途中에서 다시 가지를 잘랐다. 4km의 거리를 통하여 長城邑 上五里의 定植地에 도착한 것이 17시 그리고 18時 30分까지 미리 준비한 자리에 제대로 세웠으나 앞부분의 石築作業이 아직 남아있음으로 临时支柱로서 固定시켰다. 只今は 完全히 回復 되었으므로 예산의 뒷받침을 일어 外科手術 計劃을 세우고 있다.

2. 自生地

自生地로서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것은 北限自生地가 12점, 經濟樹種이나 學術上 稀貴樹種의 自生地로시 指定된 것이 16點等 모두 28點이 指定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 섭섭(薪島)의 파조일엽 自生地, 金溝의 송악 自生地, 한라산의 한란 自生地 및 大青島의 동백나무 北限自生地 및 槐山郡의 미선나무 自生地等은 이미 自生地로시의 面貌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筆者は 文化財管理局와 自然保存協會의 協助를 얻어 于先 槐山郡內의 미선나무 自生地를 다음과 같이 復舊시켰다.

1. 1976年 11월에 松德里, 栗池里 및 楸店里의 미선나무 自生地에 각 200株씩 補植하였다.
2. 栗池里의 것은 아직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鐵柵을 設置할 수 있도록 주선 하였다.
3. 播木 및 種子를 통하여 苗木 1,000株를 만들어 各道 國民學校에 配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配付할 수 있도록 槐山에 있는 학교에서 계속 播木增殖을 할 수 있도록 依賴하여 實施하고 있다.
4. 本事業을 推進하는 둉안 푸른미선(*for. viridicalycina*), 상아미선(*for. eburneum*) 및 동군미선(*var. obtusicarpa*) 등을 새로 발견하여 한국 식물분류학회지 제7권에 발표하였다.